

‘올해는 달랐다’ 시페퍼스, 최종전서 정관장 제압

세트스코어 3-1로 완승... 창단 첫 6위 마감 역대 최다승·승점 재경신... 조이 30점 활약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 측은 행 AI페퍼스가 정관장을 꺾고 시즌 최종전을 승리로 마쳤다. AI페퍼스는 15일 광주페퍼스타돔(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 배구단과의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최종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5-23 25-19 23-25 25-21)로 승리했다.

그 결과 16승 20패 승점 47점을 기록, 리그 6위 자리를 유지했다.

16승은 AI페퍼스가 2021-2022시즌 이후 기록한 단일시즌 최다승이다. 승점 또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앞서 AI페퍼스는 일찍이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15일 IBK기업은행을 꺾고 12승·승점 36점을 달성했다. 특히 직후 경기에서는 정관장을 꺾으면서 창단 첫 최하위 탈출을 확정 지었다.

2021-2022시즌(3승 28패 승점 11·리그 7위), 2022-2023시즌(5승 31패 승점 14·리그 7위), 2023-2024시즌(5승 31패 승점 17·리그 7위), 2024-2025시즌

(11승 25패 승점 35·리그 7위)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다.

6라운드에서 최고 기록을 연일 재경신한 AI페퍼스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새역사를 다시 작성했다.

AI페퍼스는 이날 외인 조이가 양 팀 최다 30득점(공격성공률 43.08%)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여기에 박은서가 18득점(공격성공률 42.42%), 시마무라가 11득점(공격성공률 36.84%)으로 나란히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장소연 감독은 고예림·박은서(아웃사이드 히터), 조이(아포짓 스파이크), 하혜진·시마무라(미들블로커), 박사랑(세터), 한다혜(리베로)와 함께 경기를 시작했다.

1세트는 접전 끝에 AI페퍼스가 웃었다.

상대는 시자와 함께 박은진의 속공, 자네타의 오픈으로 앞서나갔다. AI페퍼스는 조이를 필두로 박은서 시마무라, 고예림이 고른 득점을 올리면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AI페퍼스는 15일 광주페퍼스타돔에서 열린 정관장 배구단과의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최종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다.

사진제공=KOVO

23-23까지 시소계임을 이어가던 경기는 박은서의 블로킹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이어 시마무라가 상대 자네타의 오픈을 막아내면서 AI페퍼스가 1세트를 따냈다.

2세트 역시 결과는 같았다. 조이의 오픈으로 선취점을 따낸 AI페퍼스는 상대의 연이은 범실로 5-3 리드를 가져왔다. 기세를 가져온 뒤에는 격차를 크게 벌렸다. 조이의 연속 백어택과 박사랑, 박은서의 블로킹 등으로 14-8까지 달아났다. 23-14에서는 조이의 오픈과 상대 박어택의 오픈 아웃이 나오면서 2세트가 끝이 났다.

3세트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정관장이 차지했다. 17-17 상황에서 시마무라의 블로킹과 박은서의 서브에이스로 AI페퍼스가 앞서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상대 박은진이 연속 블로킹과 속공을 성공시키면서 23-25로 3세트를 가져왔다.

AI페퍼스는 4세트 끈질긴 뒷심으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세트 중반까지 끌려다닌 뒤 16-17에서 박은서의 서브에이스로 AI페퍼스가 앞서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상대 박은진이 연속 블로킹과 속공을 성공시키면서 23-25로 3세트를 가져왔다.

AI페퍼스는 4세트 끈질긴 뒷심으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세트 중반까지 끌려다닌 뒤 16-17에서 박은서의 서브에이스로 AI페퍼스가 앞서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상대 박은진이 연속 블로킹과 속공을 성공시키면서 23-25로 3세트를 가져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전북과 무승부... 3경기 연속 무패 행진

홀 경기 0-0... 승부 가리지 못해 김경민 연속 선방 승점 1점 추가



프로축구 광주FC가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의 무승부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성공했다.

이정규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지난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3라운드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무승부로 광주는 1승 2무 승점 5를 기록했다. 앞서 시즌 첫 경기에서 제주와 0-0, 홈 개막전에서 인천에 3-2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이로써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이날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박정인과 최정욱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하승은, 문민서, 유재호, 신장무를 배치했고 후방은 권성윤, 안영규, 김용혁, 김진호가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전반전은 전북의 우세였다. 상대는 슈팅 8개를 시도했고, 이 가운데 유효슈팅은 2개였다. 반면 광주는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전북은 전반 9분 이동준의 왼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3분 뒤에는 광주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때린 티아구의 슈팅을 김경민이 막아냈다.

상대의 공격은 계속됐다. 전반 36분 상대 김태현의 슈팅이 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빔나갔다. 5분 뒤에는 다시 한번 김태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3라운드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광주FC 선수단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현이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으나, 김용혁이 헤더로 쳐내면서 위기를 넘겼다.

주어진 전반 추가시간은 3분. 양 팀은 서로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전반전이 종료됐다.

광주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권성윤과 박정인 대신 주세종과 프리드손스를 투입했다. 후반 6분 상대 진영 인근에서 공을 가로챈 최정욱이 때린 왼발 슈팅이 골대

옆으로 흘러갔다. 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공을 잡은 문민서가 오른발 슈팅을 때렸으나 상대 골키퍼가 쳐냈다.

김경민의 선방은 후반 31분부터 다시 빛났다. 광주 진영에서 상대 슈팅이 이어진 상황. 공방 끝에 다시 공을 잡은 상대 김진규가 골망 구석을 노리는 슈팅을 만 들었다. 하지만 김경민이 손으로 쳐내면서 실점 위기를 면했다. 이어 3분 뒤에는

상대 코너킥 상황에서 김영빈의 헤더를 다시 한번 김경민이 막아냈다.

광주는 후반 35분 최정욱 대신 강희수를 투입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후 후반 40분 프리드손스와 안영규 대신 김원호와 공배현을 투입했다. 후반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다. 김경민은 추가시간 두 번의 선방으로 점수를 지키면서 경기는 0-0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이의리 4이닝 무실점 쾌투’ KIA, kt 5-4 제압

3회말 한준수 솔로포·나성범 투런포 활약



KIA타이거즈가 시범경기 마지막 홈 경기에서 kt를 제압했다.

KIA는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KBO 시범경기 kt위즈와의 경기에서 5-4로 승리했다. 전날 kt에게 10-10 무승부를 기록한 KIA는 이로써 kt와의 2연전을 1승 1무로 마감했다. SSG전을 포함해 2승 1무 1패로 홈 경기를 모두 마친 KIA는 원정길에 올라 오는 24일까지 남은 시범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KIA는 데일(유격수)-김호영(중견수)-카스트로(지명타자)-나성범(우익수)-김선민(2루수)-윤도현(1루수)-한준수(포수)-박민(3루수)-박재현(좌익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이의리가 나섰다. 총 46개의 공을 던진 그는 4이닝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쾌투했다.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했고,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9km였다.

이의리는 1회초 두 타자 연속 땅볼 이후 힐리어드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2회초에는 상대 선두타자에게 2루타를 맞았다. 이후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면서 무실점에 성공했다.

3회초 역시 땅볼 1개와 삼진 2개로 아웃카운트를 빠르게 채웠다. KIA는 3회말 바이닝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한준수가 상대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2사 1루에서는 김호영이 2루타를 때려냈고, 데일은 홈까지 채도하면서 득점을 올렸다. 후속타자 카스트로 1타점 적시타 이후에는 나성범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터트렸다. 경기는 5-0이 됐다.

이의리는 4회초 뜬공 2개와 삼진으로 세 타석만에 이닝을 막았다. KIA는 5회초 이의리 대신 김시훈을 마운드에 올렸다.

김시훈은 상대 이강민과 문상철을 뜬공으로 잡아낸 뒤 오윤석에게 볼넷을 내줬다. 이후 한승택을 다시 한번 뜬공으로 돌려세우면서 아웃카운트를 모두 채웠다. 7회초 1실점, 8회초 2실점을 내준 KIA는 9회초 1실점으로 이닝을 막으면서 5-4 승리를 따냈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이의리의 공격적인 투구가 돋보였다. 지금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해주길 바란다”며 “만루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김범수도 안정감 있는 투구로 위기를 잘 넘겼는데 앞으로 팀 불펜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석에서는 나성범이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팀 공격을 잘 이끌었다. 카스트로도 어제, 오늘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찬스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시범 경기 동안 팀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IA는 3회말 바이닝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한준수가 상대 초구를 그대로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부패방지 캠페인 개최

장애인선수 등 100명 대상... 공정한 체육행정 기반 강화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청렴한 장애인 체육 문화 조성에 나선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도체육회 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장애인선수, 시군지회 관계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현장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익신고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체육 분야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

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 수칙과 공익신고 안내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배부하며 참석자들에게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투명한 업무 추진과 청렴 문화 확산으로 도민과 장애인 체육인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깨끗한 체육행정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장애인선수, 시군지회 관계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현장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 청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신뢰하는 따뜻한 체육행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곽준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작은 리플렛 한 장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청렴이 장애인 체육인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